

## 한·독 경제인 오찬간담회 연설

존경하는 하인리히 폰 피에러 아·태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강신호 회장을 비롯한 양국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전경련과 아·태경제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개최된 한·독경제인회의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역동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독일 기업인 여러분이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독일 경제인 여러분,

최근 한국 경제는 견실한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며 내수 부문도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지표의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북아 경제 허브로 도약할 한국 경제의 가능성과 비전입니다.

한국은 우선 동북아시아의 하이테크 산업과 R&D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수한 인력이 많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진

학률이 보여 주듯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제는 질적으로도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인재육성과 과학기술혁신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과 초고속 통신망 등 IT 인프라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와 함께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두터운 소비자층은 한국을 첨단 신제품의 시험무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멘스, IBM, 인텔 등 세계 초일류 기업들이 한국에 R&D센터를 설립한 것도 이러한 장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일 것입니다.

한국은 또한 동북아의 금융 허브로 도약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계 열한번째의 경제규모, 축적된 연·기금 자산, 인구 고령화에 따른 풍부한 자산운용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중에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기업연금을 도입하는 등 자산운용업에 특화된 금융 허브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인천공항과 부산·인천·광양항 등 잘 갖춰진 물류 인프라와 중국·일본 시장에 인접해 있는 지정학적 여건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한을 잇는 철도와 도로가 개통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 되면 한국은 중국·러시아·일본을 잇는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허브로 성장할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한국은 능동적인 개방정책을 통해서 선진 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칠레에 이어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ASEAN·일본 등과도 협상을 추진 중입니다.

인천·부산·광양 등 세 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외국인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등 포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 누계액이 1천억 달러를 넘어서 이미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에 절반 이상이 진출해 있고, 주식시장의 42%는 외국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또한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경제를 목표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시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독일 기업인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공의 결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 경제인 여러분,

저는 한국 경제가 온통 장밋빛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핵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 보유 불가,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도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 해결, 포괄적·단계적 해결 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북핵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낼 것입니다.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건설,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등 3대 경협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려하는 노사관계도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투쟁일변도에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근로손실일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불법쟁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사·정

대타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노사관계는 훨씬 안정될 것입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은 동북아 경제 허브,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 독일과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독일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의 지도국가로서 그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독일은 EU 국가 중 두번째로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도 독일의 여러 은행과 기업들이 채무재조정과 투자를 통해 도움을 주신 데 대해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독일은 유럽 지역 제3위의 투자대상국입니다. 양국 간 교역규모도 지난해 36%나 늘어나 올해에는 2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그러나 EU 확대와 동아시아 경제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양국간 협력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상호간의 투자 확대를 통해서 독일은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한국 역시 유럽 시장 진출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자본, 금융, 기술력과 한국의 우수인력, IT 인프라, 비즈니스 여건 등이 합해지면 서로에게 큰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알리안츠·바스프·지멘스 등 많은 독일 기업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IT·에너지 기술 같은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의 협력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더 새로운 방식, 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창조적인 협력이야말로

공동의 이익창출은 물론 두 나라 간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해 주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초청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큰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